2024. 6. 16. 오후 1 시, In-Person & YouTube Online,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장소: Fellowship Hall)

설교: 임동진

본문: 요한복음 John 5:1-9

제목: 예수를 만난 사람들(41): 38 년된 병자, 오랜 실망과 낙심 후에야

설교 35 분, 11 페이지, p10-20

(표준새번역) 5:1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ESV) 5:1 After this there was a feast of the Jews, and Jesus went up to Jerusalem.

5:2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섯 개의 행각이 있었다.

5:2 Now there is in Jerusalem by the Sheep Gate a pool, in Aramaic called Bethesda, which has five roofed colonnades.

5:3 이 행각 안에는,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 환자들 등,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5:3 In these lay a multitude of invalids—blind, lame, and paralyzed. [waiting for the moving of the water;

5:4 그것은 때때로 주의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었다.]

5:4 for an angel of the Lord went down at certain seasons into the pool, and stirred the water: whoever stepped in first after the stirring of the water was healed of whatever disease he had]

5:5 거기에는 삼십팔 년이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5:5 One man was there who had been an invalid for thirty-eight years.

5:6 예수께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낫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5:6 When Jesus saw him lying there and knew that he had already been there a long time, he said to him, “Do you want to be healed?”

5:7 그 환자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으로 들어갑니다."

5:7 The sick man answered him, “Sir, I have no one to put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is stirred up, and while I am going another steps down before me.”

5:8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시니,

5:8 Jesus said to him, “Get up, take up your bed, and walk.”

5:9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

5:9 And at once the man was healed, and he took up his bed and walked. Now that day was the Sabbath.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1 절,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6 장이 예수님의 공생애 3 년을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면,이 명절이 ‘유월절’로 보아야 합니다.

(표준새번역) 5:1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ESV) 5:1 After this there was a feast of the Jews, and Jesus went up to Jerusalem.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어린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은혜의 날’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그 은혜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2 절, 은혜의 성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루살렘의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 ‘양의 문’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희생양이 들어오는 문이었고, 유월절에 잡을 양도 그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양의 문이 은혜의 문입니다.

양문 옆에는 베데스다(베드자다)라는 못(pool)이 있었습니다. '집'(House)이라는 의미의 '벧'과 '은혜','자비'를 뜻하는 '헤세드'가 합쳐져,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5:2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섯 개의 행각이 있었다.
5:2 Now there is in Jerusalem by the Sheep Gate a pool, in Aramaic called Bethesda, which has five roofed colonnades.

구원과 은혜의 날(유월절, 안식일)에 은혜의 상징인 양의 문 옆에 은혜의 집,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로 가득찬 그 곳에 38 년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한 지 38 년인데 그 기간이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나이가 38 살 이상이신 분들은 1986 년부터 지금까지 38 년동안 병으로 아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38 살 이하이신 분들은 지금 병에 걸려

38 년동안 2062 년까지 병으로 아프게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 실망과 낙심의 의미

병도 병이지만, 그 38 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38 년 동안의 질병의 고통, 그리고 그 병을 가지고 살면서 그가 경험했을 그 실망과 그 낙심은

✓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13a 절, 병고침 받고 정신 없이 좋아하다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던 그 사람이,

5:13a 그런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

5:13a Now the man who had been healed did not know who it was, ….

14 절,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14 그 뒤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서 말씀하셨다. "이제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병으로 고생할지도 모른다."

5:14 Afterward Jesus found him in the temple and said to him, “See, you are well! Sin no more, that nothing worse may happen to you.”

이 말씀을 근거로 그의 38 년간의 질병이 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혹 그가 어떤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질병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징이 분명합니다.

- **질병, 질병의 고통, 실망, 낙심… 죄인의 모습**

사전적인 의미로 볼때, 실망(Disappointment)은 기대나 희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불만족의 상태입니다. 낙심(Discourage-ment)은 실망이 반복되어 결국 자신감도 열정도 잃어버려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상태입니다.

38 년동안 아팠다고 생각하면, 그는

- 꽃다운 청년기를 병상에 누워서 보냈을 겁니다.
- 결혼을 못했거나, 했어도 가정 형편이 피폐해 졌을 겁니다.
- 배우자는 도망갔거나, 아니면 힘겹게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 자녀가 없었거나, 있었다면 그 자녀들도 죽도록 고생했을 겁니다(가장이 이렇게 병으로 누워 있으니).

38 년동안 질병으로 고통하며, 그는 실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가에 누워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것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겠지요. 하지만 거기서도 실망과 낙심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은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 **세상의 법칙(욕망, 경쟁, 소유, 능력,...) 아래**

3 절,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몰려든 병자들은 누워서 기다립니다. 3b-4 절은, 어떤 중요 사본에 나오지 않아서 [ ]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문맥과 내용은 38 년된 이 병자가 왜 거기 있었는지, 얼마나 병 낫기를 간절히 바랬는지, 어떻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했는지 잘 성명해 줍니다. 3b 절, 가끔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5:3 이 행각 안에는,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 환자들 등,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5:3 In these lay a multitude of invalids—blind, lame, and paralyzed. [waiting for the moving of the water;

4 절, 그것은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은 것이라고 여겼고,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았다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입니다.

5:4 그것은 때때로 주의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었다.]
5:4 for an angel of the Lord went down at certain seasons into the pool, and stirred the water: whoever stepped in first after the stirring of the water was healed of whatever disease he had]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병 낳기를 소망하지만, 결국 몸이 빠른 사람만 병이 낫습니다. 자기 힘으로 못들어가면, 7 절. 누군가 그 물에 밀어 넣어 주어야 합니다. 능력이 모자라면,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나보다 먼저' 물에 들어간다는 경쟁적인 상황에 이 병자는 무력감, 실망, 좌절해야 했고, 결국 낙심하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5:7 그 환자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으로 들어갑니다."
5:7 The sick man answered him, "Sir, I have no one to put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is stirred up, and while I am going another steps down before me."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기 능력이든, 인맥이든, 돈을 쓰든 악을 쓰든지 쟁취하는

사람이 임자가 됩니다. 자기가 병을 고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실력입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밟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모자라면 낙오자이고, 늦게 들어가면 실패자이며, 결국 연못가에 남겨진 사람들은 모두 힘없고, 돈없고, 백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예수만이 답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자꾸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해서, 착하게 살아서, 좋은 사람이 되고 난 후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이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에게 새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우니까 안믿기시죠? 원래 진리는 아주 명료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고통이 없어질 뿐 아니라, 더 이상 병에 안 걸리고,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 예수 따라가는 길에도 실망과 낙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아픕니다. 예수 믿어도 실망합니다. 예수 믿어도 낙심합니다. 예수 믿어도 고생합니다. 때때로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 (신앙이 어린 경우) 하나님께 상처받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어야지 왜 예수 믿기 전과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우리의 모습은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 **이전과 전혀 다르게 온전해 졌습니다.**

6 절, 예수님이 (직역) '건강해지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건강한 상태(ὑγιὴς)를 가리키는 단어는 몸만 아프지 않고 강하다는 의미 뿐 아니라 영혼까지 온전히 건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5:6 예수께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낫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5:6 When Jesus saw him lying there and knew that he had already been there a long time, he said to him, "Do you want to be healed?"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14 절, '말끔히 나았다'에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육체적인 회복 뿐 아니라 영적인 상태까지 다 깨끗하여지고 건강해 졌다는 의미입니다.

5:14 그 뒤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서 말씀하셨다. "이제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병으로 고생할지도 모른다."
5:14 Afterward Jesus found him in the temple and said to him, "See, you are well! Sin no more, that nothing worse may happen to you."

정작 38 년된 병자 본인은 자기가 어떤 상태였고,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와 예수 믿고 난 후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영혼까지 온전히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8 절에서,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며 신체적인 치유뿐 아니라, 이제 '너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 명령하십니다.

'너의 침상 자리를 들어라'고 하시며, 38 년간 너를 얽어매던 그 질병 때문에 생긴 많은 문제들에 맞서라고 촉구하십니다. 자기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한 가족들에게 이제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 주라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므로 앞으로 펼쳐질 삶을 active 하게 차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38 년간 병에 묶여 있던 삶, 38 년간 죄에 묶여 있던 삶을 떨쳐 버리고 앞으로 걸어가는 삶이 그에게 있습니다.

5:8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시니,
5:8 Jesus said to him, “Get up, take up your bed, and walk.”

예수님를 만나 새롭게 시작하는 삶은 새로운 장소로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나의 책임을 다하며 거기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바뀌었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바뀐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 세상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그 자리, 그 관계 안으로 보내어집니다.

욕망을 따라가던 세상의 삶의 방향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내 유익을 추구하며, 경쟁하여 이기고, 빼앗기지 않고 빼앗으며, 먼저 쟁취하고 먼저 차지하는 삶의 방법을 버리고,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 마무리

고통과 실망과 낙심을 지나게 하신 그 병자의 38 년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놓지 않고 붙들어 인도하신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38 년의 고통에 놓아 둔 것이 아니라, 38 년간 그를 이끄신 겁니다. 그만큼 그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그를 예수 만나도록, 예수 믿도록 이끄셨던 겁니다. 그는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38 년간 하나님이 준비시켜야 할만큼.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실 때, 제 고집을 꺾으셔야 할 때, 기간을 늘이셨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포기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 기간을 늘이셨습니다. 물에 빠져 숨을 쉴 수 없을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숨이 꼴딱 꼴딱 넘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고집이 세고, 모난 사람이라 그렇게 구석에 몰리지 않으면 제 생각과 계획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를 성장시키셨습니다.

인생 중에 실망하는 일, 낙심하는 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만나시거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그 실망과 낙심이 우리가 걷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점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 빼앗고, 밀어내고, 애쓰며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며 지쳐가는 우리를 구원하소서(회복시키소서)

➔ 예수 따라가는 우리가 실망과 낙심의 과정을 통해 다듬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고정하고, '사랑'의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소서